

#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 마음 넉넉한 행복 느끼러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한 계절, 서둘러 저버린  
벚꽃을 제대로 '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봄  
정취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봄을 상징하는 '연둣빛' 싱그러운 초록의  
향연을 보고 싶노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 넉  
넉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초록물결 넘실대는  
'고창청보리밭축제'를 제대로 즐겨보자!

/편집자 주

### ▲봄철 대표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고창청보리밭 축제'

고창군 공음면 학원농원 일원의 '고창청보리밭 축제장'은 지금 초록빛의 청보리가 실랑실랑 손짓하고 있다. 20만 여평의 광활한 대지에 눈부신 초록물결과 함께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사할 제 20회 '고창청보리밭축제'가 이번주 토요일(4월15일)부터 5월 7일까지 23일간 펼쳐진다.

66.1ha! 드넓은 대지에 초록빛을 뽐내는 청보리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에 상쾌함을 선물해준다. 청량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매년 축제 기간에만 50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을 정도로 봄철 대표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청보리밭으로 유명한 고창의 학원농장, 학원농장이라는 이름은 옛 지명인 '한새골'에서 유래했다. '한새'는 고창에 많이 사는 백로와 왜가리 등을 이르는 말로, 설립자인 이학 여사의 이름인 '학' 자에 들을 뜻하는 한자어 '원'을 붙여 학의 들이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학원농장은 봄에는 청보리와 유채꽃 여름에는 해바라기와 백일홍, 가을에는 메밀꽃의 향연이 펼쳐진다. 겨울엔 드넓은 설국의 천지로 변한다.

###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넘쳐나는 축제 20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좀 더 특별하게 펼쳐



진다. 그동안 경관만 보여주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바쁜 일상에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녹색 쉼터에서 잠시 쉬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적 의미의 축제로 그 외연을 넓혔다.

고창 학원농장임대에 펼쳐진 아름다운 구릉 경관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대거 선보인다. 축제장내 보리코인을 찾는 관광객에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보리코인 보물을 찾아라', 고창에서 생산되는 보리를 활용해 보리빵, 보리 맥주를 만들고 새싹보리 키우기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인 '보리빵, 보리맥주 만들기' 등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청춘 리(樂) 콘서트 △고창으로 봄맞이 가자 △보리밭 사이길 버스킹공연 등 다채

### 15일부터 5월 7일까지 학원농장서

올해 '녹색 쉼터서 쉬 수 있는 여유' 공간적 의미 축제로 외연 넓혀  
보리빵 만들기 · 버스킹공연 등 볼거리 · 먹거리 · 즐길거리 다채



로운 문화공연행사에 더불어 풍요로운 고창에서 자란 농산물로 만들어진 먹거리도 푸짐하게 준비돼 있다.

특히 해마다 축제장 내부까지 밀려드는 차량으로 몸살을 앓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대거 운행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정음역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타면 외지의 관광객들도 좀 더 쉽게 축제장을 찾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창 시티투어버스'로도 축제장을 오갈 수 있다. 석정운천 관광지-고창터미널-운곡탐사터 습지-선운산 도립공원-축제장-고인돌박물관·고창터미널-고창읍성 관람 후 되돌

아 오는 코스다.

봄 냄새 물씬 풍기는 힐링의 거리를 걸으며 어른들은 어릴 적 옛 향수를 되새기고, 아이들은 미래에 기억될 새로운 추억을 쌓으며 생기 넘치는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올해 약관(20회)의 나이를 맞이하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2회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볼거리와 먹거리 등에서 아주 특별한 추억을 선사해줄 것"이라며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통해 1년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활력넘치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IMSIL-GUN  
임실군

# 천만 관광 임실시대를 열어갑니다